

경고받은 신영철 대법관 사과문, 법조계 반응

“용퇴해야” VS “논란 끝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제관 개입 논란과 관련해 엄중경고 및 유감 표명을 한데 이어 신 대법관이 사과문을 내자 일선 판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의 60% 이상이 판사회의를 소집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의 소집 요구서에 대상자인 단독판사들의 60% 이상이 서명해 판사회의의 소집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의 의장인 이성복 판사는 14일 오후 6시30분 임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겠다고 13일 통보했다.

짧은 판사들은 대체로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신 대법관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장판사급에

소장판사들 “申 사과론 부족” 집단사표 움직임

중앙지법 오늘 단독판사회의... ‘사법 파동’ 조짐

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사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의 한 판사는 “소장판사들은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대법원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정면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한 고등부장판사도 “신 대법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떠나 많은 후배 법관들이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면 떠나야 하는 게 옳다”며 “이것만이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고위 법관은 “짧은 판사들이 소신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부장판사는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다면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아닌가 생각하는 판사도 많다”고 전했다.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장께서 잘 (결정)해 주셨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원 내부전산망에는 윤리위 결정 이후 처음 판사들의 움직임을 비평하는 글이 게시돼 내부 갈등으로 번질 지도 주목된다.

정진경(46·사법연수원 1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징계로는 징지도 힘을 사안을 갖고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 보장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며 “법관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소장과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반면 한 재경 법원 판사는 “만약 촛불집회를 옹호하는 법원장이 있었다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겠느냐. 다른 법관을 물러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들은 의견표명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가정법원 김운정(33·32기) 판사가 12일 “침묵이 금으로 오해되는 것이 싫다”며 내부 전산망에 검은 리본을 올리자고 제안한 글에는 ‘<謹弔 사법독립>’이라는 댓글이 300여개나 달렸다.



필리핀 여성 성추행 미군 규탄 시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활동했던 필리핀 노인들이 13일 마닐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시위는 필리핀 대법원이 미 해병 다니엘 스미스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시키려는 필리핀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 이뤄졌다. 스미스는 필리핀 여성을 강간한 것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즈워스 “방북 검토” 美-北 대화 물꼬 트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자신의 북한 방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미-북간 직접 대화가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취임 후 2번째 아시아 순방을 마감하고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

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만약 촛불집회를 옹호하는 법원장이 있었다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겠느냐. 다른 법관을 물러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들은 의견표명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방북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

한 것은 6차회담의 장기교착 상태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달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이 마침내 다가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보즈워스는 12일 귀국하는대로 힐러리 국무장관을 만나 아시아 순방결과를 보고하고 북한관련 유관부처와 방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 이론적 틀로는 안돼... 민노당은 노조 수준”

李대통령 순방 수행 황석영씨 진보에 쓴소리

대표적 진보 논객인 소설가 황석영(사진)씨가 13일 국내 진보진영에 대해 매운 소리를 했다. 이병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황씨는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 설치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진보세력에 대한 평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을 가감 없이 내놨다. 문화·예술인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더욱이 황씨의 경우 의외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수행은 청와대측에서 요청했고,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



황씨는 “한국의 진보정당이라는 민노당도 비정규직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는 못 가고 그저 노동조합 정도에서 멈춰 있다”면서 “좌파는 리버럴해야 하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독재타도나 민주화운동이 억압당

했던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황씨는 현 정치 구도에 대해 “영호남 토착인 한나라당, 민주당으로는 진보, 보수를 따지기 어렵다”면서 “진보, 보수를 할 단계까지 못 갔으나 한나라당이 서울의 지지를 얻어서 전국정당의 기틀을 잡은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황씨는 “일각에서 현 정권을 보수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스스로는 중도실용 정권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봤다”고 말했다.

한·중 ‘이어도 분쟁’ 재발하나

中 200해리 경계선 유엔 제출

우리나라가 실효지배 중인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12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또다시 이어도를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마감시한인 13일을 앞두고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중국 은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면서 “중국이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격을 가장 쉽게 사관 학문만이 공부방법의 Know-How를 안다면 www.hanbitgosi.com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수석합격 100% | 문제풀이 | 강강 6월 1일

한빛 고시학원

한빛소망직업전문학원

대한방송 방송국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1376-8888

RADIO

기독교방송 신도지원센터

CBS

080-800-1031

TV

www.cbsnews.com